



제26차 국제산업보건학회 참관기

가톨릭의대 예방의학교실 / 이 세 훈

1. 제26차 국제산업보건학회

3년마다 열리는 전세계 산업보건학자들의 잔치라 할 수 있는 종합학술대회인 국제산업보건학회(International Congress on Occupational Health, ICOH)가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1일까지 법과 질서가 잘 지켜진다는 도시국가인 싱가포르에서 개최되었다. 스톡홀름에서 열렸던 25차 모임이 1996년에 열렸으므로 작년(1999년)에 개최되었어야 하는데 4년만인 2000년에 치루어진 이유는 28차 국제산업보건학회(이태리 밀라노)를 100주년(2006년)에 맞추기 위한 것이다. 27회 ICOH는 브라질의 폭포로 유명한 이구아수에서 있을 예정이다. 금번 학회는 근 100여개 국에서 2000명이 참가하였으며 1000여개의 연제가 발표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의대의 염용태 교수 등 5명, 서울의대의 강대회 교수 등 3명, 산업보건연구원의 정호근 원장 등 3명, 가톨릭의대에서는 박정일 교수와 필

자 등 모두 15명이 참석하여 연제를 구연 혹은 포스터로 발표하였다. 학회는 27일부터 시작하였지만 학술발표가 28일 개최식 후부터 진행되었고 26일 오후에 Pregathering 모임이 있었다.

28일 오전 9경 학술대회장인 싱가포르의 J. Jeyaratnam교수가 환영사를 통하여 향후에는 curative measure가 아니고 complex prevention을 지향하자고 역설하였고 ICOH의 회장인 JF Caillard교수(불란서), WHO의 Dr. M Repacholi, ILO의 Dr. J Takala 등의 간단한 인사말에 이어 싱가포르의 인력부(우리나라의 노동부에 해당)의 Dr. BY Lee장관이 개회사를 하였는데 20여분이 넘게 산업보건에 관한 내용으로 강의하듯이 지루하고도 장황한 말을 하여 국민소득 3만불이 넘었다고 자랑은 하지만 역시 관료주의국가라는 인상이 주어졌다.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5일간에 걸쳐서 있었던 학술대회는 오전은 전체강연으로서 9개의 keynote address가 45분씩 발표되었고, keynote address가 끝난 후와 오후에는 10여개의 방에서 각각 2~3개씩 모두 67개의 mini symposium과, ICOH의 각 분과위원회(scientific committee)가 진행하는 구연 발표가 각각 10여개의 방에서 총 98개의 free communication(각 5~6개 정도의 연제)이 진행되었고 별도로 매일 오전 오후로 나누어 포스터를 통한 발표가 진행되었다.

keynote address의 연제와 강사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Keynote Address

Impact of Globalization on Occupational Health —J Rantanen(Finland)

The ICOH and Occupational Health Practice: across the Century

—J-F Caillard(France)

The Changing World of Work

—A L Johansson(Sweden)

Advances in Occupational Cancer Prevention —H Fu(China)

Occupational Health in Developing Countries —R Facci(Brazil)

Challenges to National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Institutes —L Rosenstock(USA)

Occupational Health : Is It a Saleable Commodity? —M Harrington(United Kingdom)

New Technologies in the Workplace and Their Impact on Health —M Kumashiro(Japan)

Electromagnetic Fields and Health Outcomes —B Knave(Sweden)

학회를 참석하는 목적 중의 하나가 저명한 학자의 강연을 듣는 것인데 이번의 학회에서는 많은 참석자들이 일부의 강연자를 제외하고는 그런 점에서 만족하지 못한 것 같았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NIOSH의 Dr. Rosenstock의 강연은 역시 그의 명성에 맞게 시사하는 바가 있었다고 본다. 그는 산업과 기술이 급변하고 다양해지는 현실 속에서 산업안전보건도 따라서 변화할 수밖에 없으며 그 점은 관련된 연구와 연구소도 마

찬가지라고 하였다. 그 밖에 미래의 산업, 여성 인력의 증가, 신종 산업에 의한 예기치 못한 치명적 사고, 선진국에서의 근로시간의 증가, 직업관련 스트레스, 연구나 정책결정에 있어서의 학문적 방어를 위한 evidence-based 정책 등에 관하여 강의하였다.

2. 제5차 생물학적 모니터링 국제 심포지움(Banff, Canada)과 한일중 산업보건 학술집담회

ICOH학회 중간에 각 분과학회별 모임이 있었다. 서울에서 1998년에 개최되었던 제4차 생물학적 모니터링에 관한 국제 심포지움에 이어 제5차 모임은 서울에서의 결정대로 2001년 9월 18~21일에 캐나다의 Banff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회의의 서두에서 제4차 서울 심포지움이 준비과정과 진행 및 proceeding의 제작과 배포에 이르기까지 성공적이었다고 언급하였고 그러한 내용이 회의록에도 있어 자랑스러웠다. 이 자리를 빌어 당시의 조직위원장이셨던 정규철 교수, 학술위원장이셨던 윤임중 교수, 전체 진행을 지도하셨던 조규상 교수, 그리고 최병수 부회장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제5차 심포지움이 열리는 Banff는 캐나다 록키산맥의 중요 거점이 되는 관광지로서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곳이며 해마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사람이 관광하러 가는 곳

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교토에서 있었던 제1차 심포지움부터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여 연제를 발표했을 뿐 아니라 유명한 관광지이므로 많은 사람들이 Banff 모임에 참석을 고려할 것으로 보며 관심 있는 분은 website(www.cme.ucalgary.ca/isbm)를 방문하여 참고하시기 바란다. 다만 싱가포르의 회의에서 ICOH회원과 학생들에 대한 할인을 고려해줄 것을 주최측에 요청하였지만, 참가비가 750캐나다 달러(약 500USD)로 비싼 것이 흠이다.

학회 중에 한일중 산업보건 학술집담회를 위한 준비에 대하여 일본의 Higashi교수와 함께 중국의 Wang교수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잠정적인 프로그램을 함께 편성하였다. 한일중 산업보건 학술집담회는 2001년 5월 17~19일(목~토)에 베이징대학교에서 있을 예정이며 특강과 자유연제 발표외에, 세미나(19일) 및 workshop(17일 오후)이 있을 예정이다.

3. 학술대회 외적으로 있었던 일

스톡홀름에서 열렸던 학회 싱가포르 학회와의 차이점은 9개의 keynote address는 같았으나(단, 이번에는 불어 동시통역은 없었다) mini symposium과 free communication을 진행하는 방의 수가 두배 정도로 증가했다는 점이다. 양적으로 팽창한 것처럼 보이나 실제적인 발표 숫자는 감소하였으며 오히려 산만하고, 비슷한 분야를 분산시켜서 발표장소가 너무 협소하여 심지어는 20명 정도도 들어가기 어려운 방에 의자를 30개를 집어

넣어 좁을 뿐 아니라 매우 더웠다. 더욱이 초록집에 초록이 실려있지 않거나 심지어는 연자가 불참하여 생략되는 연제도 많아 6개의 연제 중에 3개만 발표하는 경우까지 있어 여러 가지로 실망스러웠다. 학회기간 내내 아래층에서 가요가 확성기에서 크게 울려나오는 것이(제주도의 하이얏호텔처럼 가운데가 비어있음) 학회장인 4층에서도 그대로 들려 시끄러워 시장바닥에서 학회를 하는 기분이라고 다른 나라의 참석자들도 불평을 하였다. 중요한 것은 아니나 포스터발표를 촉진하기 위해 흔히 있는 Poster Award도 없었다. 서두에 2000여명이 참석하고 1000여 연제가 발표되었다고 하였으나 이 숫자도 역시 확실한 것이 아니라 어림잡은 것이어서 조직위원 중에 이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없어서 발표연제수를 물으니 초록집에 있는 숫자를 필자보고 세어보라고 답하고 또한 참석자 명단도 나누어주지 않았다(나중에 참석자들에게 보내줄 것이라는 말을 들었으나 확실한 것 같지가 않음).

Pregathering 모임장소는 40~50평쯤 되는 개방형 홀로 매우 협소했고 모 교수는 맥주 한컵을 제공받기 위해 15분을 투자했다며 웃었다. 심지어는 Congress Banquet(참가비를 내지 않은 사람에게는 150싱가폴 달러를 받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먹고 마실 것이 턱없이 부족할 뿐 아니라 포도주 한잔에 7천원씩 별도로 팔아, 화려한 전야제로 시작되었고 Banquet을 성대하게 마련하였던 스톡홀름의 25차 모임과는 여러 가지로 비교되었다. 